

조금만 기다려요

박복삼

닐리 수 틀레도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벼웠다. 마치 일고여덟 살 소녀처럼 2층 계단에서 깡총거리듯 내려왔다. 가끔씩 차려입곤 하던 녹색 치마에 그려진 커다란 장미꽃 무늬가 할머니를 따라 춤추듯 하늘거렸다. 식사를 바빠 준비하던 엄마는 싱긋 웃으며 인사한 뒤 오븐에서 감자를 꺼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아빠도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어머니, 아침부터 기분 좋으시네요?”라며 활짝 웃었다.

식탁에 네 식구가 둘러앉은 건 지난 주 샤бат 이후 일주일 만이었다. 구운 감자와 삭슈카, 베이글 등 그저 늘 먹던 아침 메뉴지만 여느 성찬 못지않았다. 삭슈카에 베이글을 찍어 먹으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만큼은 착한 딸, 착한 손녀 행세도 괜찮겠다 싶었다.

“엄마, 오늘 삭슈카에 뭐 넣었어요? 진짜 맛있네요.”

“닐리, 요란 떨기는. 많이 먹어라.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할머니도 감자 한 개를 접시 앞에 더 놓았다. 최근 들어 부쩍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며 늘 소화제를 달고 살던 할머니의 찌푸려있던 두 눈썹 사이 세로 주름이 모처럼 활짝 펴있다. 웃는 할머니 얼굴을 본 것도 참 오랜만이다.

“할머니는 감자하고 팔라펠을 제일 좋아하잖아, 나도 김치 말고 감자가 좋아.”

말실수였다. 들뜬 마음에 할머니 기분 맞추려 괜히 내뱉은 말이었다. 아빠는 침묵했고,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쳐다봤다. 엄마의 뽀족해진 시선을 모른 채 하며 부러 말을 덧붙였다.

“집에 김치 냄새가 났어. 버스 타면 사람들이 킁킁대며 다 쳐다봐.”

사실 집에서 김치를 먹는 일은 거의 없었다. 둘을 번갈아 쳐다보며 감자를 한 입 먹던 할머니가 치마를 살짝 들어올리며 입을 뚝뚝.

“맘, 켄 이히 트로근 뎀 그린 레클 온 게인 아로이스 온 쉬필른 노크 솔레 하인트? 이히 벨디키 니쉬트 바쉬무튼. (엄마, 오늘 학교 마친 뒤 이 녹색치마 입고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더럽히지 않을게요.)”

할머니의 증상이 다시 시작됐다. 엄마, 아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도 금세 말문이 닫혔다. 그저 엄마만 할머니에게 눈치껏 애써 대답할 뿐이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세요.”

“이히 하브 네크트 나흐트 패런딕트 메인 렉체스. 이크 베이스 이쉬트 치 이크 벨 헤인트 케넨 네멘 딕타체 게준트.(어젯밤에 숙제는 다 했어요. 오늘 받아쓰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말은 그칠 줄 몰랐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독일어같지만 독일어가 아니었다. 히브리어도, 폴란드어도 아니었다. 어느 누구도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할머니의 ‘또 다른 말’이 늘면서 엄마와 아빠의 말수는 도리어 줄어들었다. 가족 간 대화는 사실상 단절됐다.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나타난 건 벌써 다섯 달이 넘었다.

학년시험 마친 뒤 모처럼 흥분하게 집에 돌아왔고 다 함께 저녁식사를 준비할 때였다. 유대율법 코서에 따라 미리 피를 빼고 준비해놓은 양고기는 물론, 후무스, 팔라펠, 감자, 와인까지 말 그대로 만찬이었다.

탁자에 앉아 감자를 다듬던 할머니가 막 퇴근한 아빠를 급히 불렀다.

“갈, 그나저나 이번 학기에도 장학금 받을 자신 있지? 이스라엘로 이사할 생각하니 돈 들어갈 구석이 너무 많아 걱정이구나.”

아빠와 나는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더니 할머니는 갑자기 아빠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다.

“그런데 저 동양 여자는 누구냐? 저녁 준비 도와주러 온 사람인가? 일은 제법 하는 것 같지만, 눈도 작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할머니는 주변을 살짝 둘러보더니 다시 한 번 아빠에게 귀엣말을 건넸다.

“니네 아버지가 자리에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행여라도 율법 모르는 사람은 아예 들이지 말라고 경을 쳤을 텐데 말이다.”

아빠의 얼굴빛이 붉어졌다. 아빠가 엄마에게 보낸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엄마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내 심장도 마구 박동쳤다.

십 년도 넘은 옛날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는 뭐며, 엄마 아빠가 결혼한지 벌써 15년이 훌쩍 넘었고, 보스턴에서 이사 온 지도 벌써 7년이나 됐는데, 무슨 얘기인가. 굳게 다문 아빠의 입술이 몇 차례 들썩이다 멈춘다. 오븐을 닫고 조용히 돌아선 엄마는 미동조차 없다. 엄마를 연신 힐끗거리는 할머니의 눈빛만 부엌의 침묵 사이에서 분주했다.

박수연

충격과 모욕이 앞뒤 없이 뒤섞였다. 조용히 부엌을 나와 안방 화장대 앞으

로 가 거울을 들여다봤다. 중년으로 접어드는 동양 여자가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다. 시어머니 야파의 말처럼 눈도 작고, 광대뼈는 볼록한 여자가 있다. 초점 잃은 눈빛에 얼굴빛도 어둡다. 들여다볼수록 음울하기만 한 여자의 운명이 자꾸 거울에 비친다. 길게 돌아와 제법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했건만 지독한 운명은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이었다.

아픈 건 야파의 모진 말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충격, 그 자체만도 아니었다. 긴 시간에 걸친 불행과 참담함의 재확인이 가슴을 쿵쿵 찢었다. 가슴에 박혀있던 대못이 이미 빠졌겠거니 하며 안도할 때 심장 깊숙한 곳에서 붉은 녹물이 똑똑 흘러나오는 듯했다.

광주역에서 기차 타고 서울역 거쳐 도착한 김포국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이십 수년 전, 공항 식당에서 “며칠 동안 못 먹을 테니 마음껏 먹어두자고.”라며 떠들썩하던 여행객, 출장객들 틈바구니에서 혼자 김치우동에 고춧가루 뿌려 조용히 한 가닥씩 후룩거렸다.

미국 커뮤니티 대학에서 교수와 제자로 만난 같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의지하던 이였다. 경충한 키에 금발머리의 그는 내 집안 이야기도, 미국에 온 사연도 애써 묻지 않았다. 자신의 집안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1년 남짓 뒤에야 그가 유대인임을 알게 됐다. 내 이야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한참 들은 뒤에도 “학살의 대표 유대인도 있잖아?”라며 어깨를 으쓱하더니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장난이 오히려 편안했다. 그때 학살이라 했던가, 피학살이라고 했던가.

갈의 어머니 야파는 달랐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래 위를 훑어봤다. 눈빛 자체가 수치스러웠다. 유대인은 질문과 토론의 하브루타 교육이라더니 연신 질문만 쏟아냈다. 탈무드의 지혜 등은 허울 좋은 얘기일 뿐이었다. 반복되며 쏟아지는 “왜”와 “어떻게”는 질문이라기보다 추궁에 가까웠다. 수연이를 뱃속에 가지고서야 어렵사리 결혼 승낙을 받았다.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것, 히브리어를 배울 것, 또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산다는 것 등 몇 가지 약속이 먼저 있었다. 어차피 미국 정착에 필요해 마지못해 다니던 개신교 교회였다. 개종에 아무런 미련은 없었다. 아기처럼 웅얼이 하듯 말을 더듬거렸고, 상형문자갈기도 하고 아랍어를 닮은 알레프(א), 베틀(ב)로 이어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손가락으로 짚고 써내리며 배워가는 과정이 꽤 힘들었을 뿐이었다.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며느리로서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유대인이나 한국인 모두 가족의 가치와 예의, 사회적 체면 등을 중시 여긴 덕이었을 테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자기 연민 또는 망각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제는 망각

이 아니라 발밑이 허물어지는 느낌이다.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쓸수록 더욱더 깊이 빨려 들어간다. 그 옛 시절 듣던 음악으로도 달랠 수 없는 심연이다. 눈치 없는 남편은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지 않았다. 이럴 때 젊은 시절 언젠가처럼 괜한 장난이라도 쳐줬으면 하는데 방문 두어 번 두드리더니 더 이상 기척이 없다.

날리 수 톨레도

7년 전 예루살렘으로 이사 온 뒤 집에서 우리는 늘 영어와 히브리어를 섞어 썼다. 애슈케나지 유대인으로서 정통파(orthodox)인 할머니는 바깥에서 떠돌던 세월을 보상받으려는 듯 한동안 히브리어만을 고집했다. 엄마 역시 히브리어에 꽤 능숙했다. 유대인 정체성을 거부하지 않지만 집 밖을 나서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며 가끔씩 내 손을 잡고 “뭐 어때” 하면서 맥도날드 햄버거도 슬쩍슬쩍 사먹곤 하는 아빠보다 오히려 더 나은 수준일지도 몰랐다.

첫 증상 이후 할머니가 이디시어를 쓰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 폴란드 애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다. 독일어와 비슷하지만 다른, 히브리어에서 문자만을 비슷하게 빌려온 자신들만의 언어다. 며칠 동안 도서관에 파묻혀 살던 엄마가 알아낸 사실이었다. 엄마는 이디시어의 체계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더니 음악을 찾아서 들었고, 한 줄 한 줄 더디게 읽을 뿐이라더니 어느덧 이디시어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모국어는 물론, 영어, 히브리어 등을 독학한 ‘언어 천재’다운 면모였다.

어느 날인가는 나를 급하게 부르더니 “그것 알아? 1978년에는 이디시어로 쓰인 작품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단다.”고 마치 세상의 비의를 찾아낸 사람처럼 요란한 걱정을 드러냈다. 이디시어는커녕 독일어도 모르는 아빠와 나는 여전히 알쏭달쏭이었다. 엄마가 없으면 할머니의 혼잣말만 벽과 벽 사이를 메아리치곤 했다.

엄마는 집에서 한국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는 컴퓨터로 한국어 노래를 들곤 했다. 노래를 들을 때 엄마의 안방은 늘 잠겨 있었다. 방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노래만 들을 수 있었다. 열한 살 때였던가, 어느 날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엄마 곁에 앉았다. 그냥 한국 노래를 엄마와 함께 듣는다는 게 참 좋았다. 하지만 엄마는 인기척에도 돌아보지 않았고, 곁에 앉은 내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다. 함께 노래를 들었지만 함께 있지 않는 듯했다. 아득히 멀리 떠나버린 듯 엄마는 낯선 얼굴로 노래가 흘러나오는 빈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다. 베이스 기타와 드럼이 두둥거리는 락 장르

였지만 빠르지 않게 읊조리는 노래는 무슨 뜻의 가사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반복되는 낯선 노래가, 그 낯선 언어가 엄마를 멀리 데려가 버린 것 같았다. 노래를 듣다 서럽게 울었다. 엄마는 그제서야 날 돌아본 뒤 안아줬다.

박수연

나의 어머니, 아니 엄마도 치매에 걸렸다. 실성했다는 표현이 더욱 맞았다. 엄마는 주변의 안타까움과 동정 속에 2년 넘게 넋을 잃은 상태로 살았다. 잠시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온 어느 날, 아마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굵은 대못으로 박힌 채 녹이 슬어가고 있던 기억의 한 조각이다. 1980년 5월 아버지의 끔찍스러운 죽음, 그리고 불과 2년 뒤 6개월에 걸친 나의 감옥 생활은 엄마가 제정신으로 세상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 지금도 광주 백운동 뒷산 어느 바람결에 엄마의 뺨가루가 휘돌고 있을는지, 아니면 오래전 땅에 녹진하게 내려앉아 풀과 나무들을 무성하게 만들고 있을는지 모를 일이다.

참담했던 도시의 흔적도 다 지워진 듯하던 1986년이였다. 막 봄이 내려앉아 광주천의 버드나무가 새로 움을 틔우고 연한 잎들을 피워내던 날, 엄마하고 모처럼 시내 나들이를 갔다. 금남로 옛 표구점을 보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졸랐던 엄마였다.

엄마는 빛이 바래 번들거리는 남색 바지를 잘 다려 입고, 반짝거리게 닦은 검은색 단화와 흰 양말을 신고 나섰다. 걸핏하면 나에게 “수연이 면회 가야제. 니도 언능 옷 입고 따라오니라.”라며 똥뺨바지 입은 채 정신없이 집 밖을 나서려 하던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도청 앞에서 걸다가 금남로 2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세 번째 골목 입구에 있던 표구점은 빵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엄마는 빵집 문 앞에서 간판을 한번 올려다보고, 옆 가게와 주변 거리를 적어 실망한 듯 물끄러미 살폈다.

엄마는 이내 “잘됐다잉. 모처럼 니랑 시내 나왔는디, 빵이랑 우유랑 사먹자.”면서 먼저 내 손을 잡아끌었다. 꿈만 같았다. 엄마와 이렇게 멀쩡하게 얘기하다니. 엄마는 포크로 팔빵을 쿡 집어든 채 연신 빵집 안을 두리번거리며 표구점의 옛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이쪽이 표구 틀 쌓아놔던 데고, 저쪽이 풀 바르는 다이 놔뒀던 데 같은디…. 저쪽에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 말고 싹 다 바뀌부렀네. 저 다락방서 지금도 누가 사는갑제?”

충금 표구점.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이었다. 엄마 아빠의 신집 살림집이자 일터였다. 여기저기 손 벌려 연 표구점에서 돌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그리고 2층 다락방-방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깝다.-에서 먹고 잤다. 기신기신 살지라도 그럴싸한 동양화 하나쯤 표구해서 걸어놓는 게, 예향이라 자부하는 도시에서 누리는 최대의 호사였다. 총금 표구점은 번창했다. 5년 남짓 지나며 빚도 갚고 집도 장만했다. 다락방은 큰맘 먹고 마련한 별표전축이 있는, 아빠의 음악감상실로 변신했다. 중학교를 채 마치지 못한 아빠가 가사를 이해했을까 싶긴 하지만 아빠는 비지스, 롤링스톤스, 비틀즈 등을 들었다. 가끔 신중현, 패티김도 들긴 했지만, 아빠에게는 오로지 외국 팝송이었다. 표구점 다락방은 나의 놀이터였다. 중학생이 된 뒤로는 다락방을 찾아 팝송을 듣다 아빠와 함께 사전 뒤적거리며 영어 공부를 했다. “내가 그동안 뜻도 모른 채 흥얼거렸는디 눈이랑 귀랑 한꺼번에 번쩍 떠지는 것 같다이.”하며 좋아하던 아빠는 일감이 잔뜩 쌓인 시간에도 내가 들르면 꼭 짬을 냈다. 어느날 우연히 산울림 5집을 한 번 듣더니 아빠는 김창완의 질박하면서도 공명 있는 목소리에 푹 빠졌다. 내 손을 잡고 레코드 가게로 가 내쳐 1~4집을 한꺼번에 구입했다. 그리고 한동안 틈만 나면 산울림을 꺼내 들었다.

빵집으로 변한 옛 총금 표구점의 기억을 더듬어보니 멀쩡해진 엄마와 다시 한 번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도 샘솟았다. 한참 빵집 여기저기 둘러보며 상념에 젖던 엄마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일어났다.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 밖 화장실로 갔다. 엄마는 없었다. 대신 뒤쪽 금남로 2가 큰길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메, 어째야쓰까잉. 저 아줌마가 트럭에 치어부렸어야.”

“난 잘못 없당께요. 이 아짐씨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당께. 아따 이 아짐 미친 거 아녀?”

30대 초반 쯤의 트럭 운전자 남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길바닥에는 남색 바지의 중년 여자가 누워 있었다. 머리가 완전히 깨져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6년 전 아빠의 마지막 모습과 흡사했다. 2년 동안 치매와 실성에 시달리던 엄마는 모처럼 합리적인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가장 뾰족이 되살아났던 그 날,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마지막 선택을 했다. 스물다섯 살에 고아가 됐다. 차마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닐리 수 틀레도

아빠를 닮았겠지. 170cm 정도 되는 키는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금발이 아닌 검은 머리에 광대뼈 도드라진 동그란 얼굴, 비교적 작은 눈은 어릴 적 친구들 놀림을 받기 일쑤였다. 엄마를 닮았다. 이스라엘 와서 다니는 학

교에서는 더더욱 외모가 도드라졌다. 아랍계와 유럽계 유대인 외에 동양인이 거의 없는 이 곳에서 두 손을 눈꼬리에 대고 찢는 애들은 거의 없었다. 대신 노인들이 문제였다. 이주 초기 가족들과 간 식당에서 6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다짜고짜 엄마와 나를 가리키며 “이봐, 중국인들, 여기서 뭐하는 거야.”하더니 아빠를 향해 “왜 동양인과 붙어있어?”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무례하게 굴지 말라.”며 발끈해서 싸워준 아빠가 있어 든든했지만 무서웠다. 국가적 정신적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명분 탓인지 이교도 혹은 비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더욱 극심했다.

난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근본은 모계 혈통이다. 디아스포라 민족답게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어디든 유대인 여자가 낳은 아이는 유대인으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다. 엄마도 어렵게 개종했고 이스라엘로 왔으니 유대인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법적 지위 외에는 힘든 일투성이다. 엄마는 왜 하필 동양인이었는지, 그렇다면 차라리 한국에서 계속 살지 왜 미국으로 건너왔는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운 뒤끝에는 유대인보다 더 디아스포라처럼 살아온 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졌다.

박수연

시아머니 야파는 그날 저녁 또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서 1km 남짓 떨어진 동네 마트 근처에서 멍한 표정으로 터벅거리는 야파를 찾았다. 이디시어건 히브리어건 뭐건 대화를 나눌 한가한 상황이 아니었다. 차마 부르지 못했다. 두어 걸음 뒤에서 말없이 따라갔다. 살며시 팔을 잡아봤지만 막무가내로 뿌리치니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야파는 길을 걸으며 자꾸 불안한 눈빛으로 힐끗힐끗 뒤돌아봤다. 급히 회사를 박차고 나올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해가 저물고 거리는 어둑해졌고, 가로등은 하나둘씩 불을 밝혔다. 노인의 걸음은 더뎠다. 저문 거리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앞서가는 야파와 댕 걸음 떨어져 마치 남남인 듯 말없이 걸었다. 가로등 불빛을 등진 채 질고 희미한 그림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두 개, 세 개로 엇갈렸다. 기약 없는 뒤편에 마음이 지쳐갔다. 언제까지 저 뒤를 묵묵히 따를 수 있을까하는 막막함이 새삼스럽게 또다시 피어올랐다.

닐리 수 틀레도

가자지구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의 일곱 살 소년이 이스라엘군 총에 맞아 죽었다는 새로울 것 없는 뉴스가 TV에서 단신으로 보도됐다. 물론 학교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 나만 심각했다. 짝꿍처럼 지내고 마음도

잘 통하던 케이티에게 슬쩍 말을 건넸다.

“그 아이가 우리를 공격한 건 아니었을 텐데... 테러리스트들이나 진짜 위험한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야. 그렇지 않니?”

케이티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결국 그 꼬마도 몇 년 지나면 우리에게 총을 들거나, 최소한 돌멩이라도 들고 몰려다니면서 위험하겠지.”

흠칫 놀랐다. 익숙한 친구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건 경우가 좀 달랐다. 대화가 곱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예 싹을 자르는 차원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면 민간인인 건 아이건 모두 다 죽이자는 것과 뭐가 다르니? 계속 이렇게 전쟁하자는 말이잖아?”

케이티 또한 지지 않았다. 교실의 다른 몇몇 친구들도 가세했다.

“나도 전쟁, 죽음 이런 것들 싫어. 하지만 우리도 졸업하면 대부분 군대에 갈 텐데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잖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만 18세가 되면 남녀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방위군(IDF)에 가야 한다.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물론 대학에 가면 입대를 미룰 수 있고 결혼을 해도 면제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 쯤 되면 이스라엘 군인의 부상 혹은 사망 뉴스가 남 일이 아닐 테니 핏대 세우면서 주먹을 불끈 쥐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죽음과 죽임의 관계가 몸으로 확 다가올 수밖에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유와 삶을 주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곤 하는 아버지나 아주 보수적인 애슈케나지답게 메시아 없이 건국한 이스라엘 정부에 비판적인 할머니 틈에서 커왔으니 친구들과 조금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런데도 친구들과 논쟁의 귀결은 늘 나의 정체성이었다.

“닐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것 아냐?”

하지 않았어야 할 말이었다. 나의 외모와 종교적 충실성, 이주 경력, 엄마의 출신 등을 몽땅 한꺼번에 떠올리며 던졌을 말이었다. 기가 막혔지만 즉각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도 않았다. 그 녀석에게는 지나칠 때마다 지을 수 있는 최대한 경멸의 표정과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박수연

1979년 평생토록 대통령만 할 것만 같았던 군인 출신 대통령이 부하가 쓴 총에 맞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즈음 나는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 명문사

림 K대학 영문과와 지역 국립대학인 J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영어교육과를 택했다.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한껏 기분이 좋아진 아빠는 총금 표구점 문을 일찍 닫았다. 모처럼 가족 외식을 했다. 아빠는 일주일 넘도록 매일처럼 친구들에게 돌아가며 술을 샀다.

아빠 친구들의 술자리에 불려가 함께 자리를 하기도 했다. “이쁘고 야물딱진 것이 공부꺼정 이리 잘 했네잉.” 등 적당한 칭찬 오가던 술자리는 탁배기 몇 순배에 다들 불과해지자 세상 얘기로 이어졌다. “영부인님도 그리 떠났는디 안타까운 일이어.”라며 혀를 차는 친구의 말에 아빠는 호기롭게 “사필귀정이제.”라고 내뱉었다.

얼마 뒤 또 다른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아빠는 또다시 얼큰하게 취하고서는 종주먹을 흔들곤 했다.

“수연아, 세상이 좀 웃기지야. 이래도 군인 세상이고, 저래도 군인 세상이야. 니는 그래도 대학 가서는 딴 생각 허들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쓴다. 알것제?”

하지만 대학 입학 몇 달 뒤 나는 선배 손에 이끌려 야학 교사를 시작했고 데모에도 바빴다. 총장로, 금남로에는 학생과 전경들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갔고 매캐한 최루탄 연기가 가시지 않았다. 표구점이 문을 닫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다. 그해 더위는 초봄부터 일찌감치 찾아왔다. 나는 분주하게 길거리에 땀을 쏟았다. 표구점 앞 금남로에서 시위대를 쳐다보고 있던 아빠를 먼 거름에서 본 적이 있다. 아빠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냥 지나쳤다.

가끔씩 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늘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던 아빠는 어느날 나에게 “수연아, 산울림 6집이 나왔다는디 레코드점 같이 가보자.”고 말했다. 음악은 내 삶에 별 비중이 없는 일이 되었다. 나는 혼자 가서 사라져 답했고, 아빠의 표정은 착잡함으로 바뀌었다. 아빠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해 5월 19일 하늘이 찌뿌둥했다. 18일, 19일 이틀 내내 지도부 선배들이 보이지 않았다. 오후 들어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총성과 호루라기 소리에 뒤섞인 채 이틀을 뜯눈으로 새운 엄마는 아빠를 찾아 나섰다. 엄마와 함께 시내를 헤맸고 나흘 뒤 저녁 무렵 아빠를 찾았다.

그날 저녁 도청 앞 상무관에는 시큰한 땀 냄새와 피비린내, 소독약 냄새가 가득 뒤섞여 있었다. 머리가 아프더니 멍해졌다. 내딛는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아빠가 여기 왜 있어? 여기는 아닐 거여. 병원을 더 찾아봐야지.”라고 부러 엄마의 팔을 잡아끌었다. 엄마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실성한

사람처럼, 밭고랑 밭품 파는 농부처럼 누워있는 사람들 사이를 한 줄 한 줄 헤집고 다녔다.

그리고 아빠가 표구점에서 늘 작업복처럼 입던 세로줄무늬 황색 셔츠를 입은 시신을 먼 발치에서 발견한 엄마는 한걸음에 달려갔다. 여기저기 살펴보고 뒤져보더니 이내 한마디 말도 내뱉지 못하고 까무러치고 말았다.

아빠는 사람의 몸골이 아니었다. 오른쪽 머리 윗부분은 거의 4분의 1 정도 함몰돼 있었고, 코뼈도 짓이겨져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간호대 학생들까지 나서서 닦고 정리했지만 참혹한 형상을 지워내지는 못했다.

검사의 검시와 군인들의 확인까지 받고서야 고향 화순에 묻을 수 있었다. 며칠 동안 경찰서를 같이 헤맸던 작은 아빠는 “형님 찾아 수습한 것만도 어디여? 지금도 집 나간 자식새끼 못찾은 사람이 썩당게. 형수, 기운 내씨요.”라며 엄마를 위로했다. 그리고 “육시럴놈들, 도망 온 학생 다락에 숨겨준 것이 맞아 죽을 죄란 말이여? 개 잡드끼 패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위인이 아닌 것이 문제였제. 그럴다고 사람을 어쩌케 이렇게 맹글어부냐. 썩것들은 제 명예 못 죽을 것이여.”라고 허망한 욕을 한 사발 늘어놓았다. 엄마는 하루는 뉘을 잃고, 또 하루는 종일 곡만 해댔다. 나는 마지막 날 땅 속으로 들어가는 관을 보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럽게 울었다. 아빠는 표구점과 꽤 많은 레코드판, 그리고 기진한 아내, 천방지축 딸을 남겨놓고 떠났다.

그날 밤 집에 가득 쌓여있던 레코드판을 한 장, 한 장 꺼내봤다. 엄마 지청구 들어가면서 6~7년 동안 모았을 음반이 200장 가까이 됐으니 어지간한 마니아 수준은 된 셈이다. 레코드판 더미 곁 책장에 따로 보관돼있던 음반에 눈이 갔다. 산울림 6집이었다. 아예 비닐포장조차 뜯지 않았다. 산울림을 특히나 좋아했던 아빠는 왜 새 음반을 사놓고서 듣지도 않았을까. 1집에서 5집까지 나란히 모아놓은 채 6집만 따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말이다. 포장을 뜯고 턴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대여 조금만 참고 기다려요
아침이 되면은 내가 가겠어요
나 그대 데리러 그대 데리러
적막한 이 밤을 뚫고 달려간다
.....

조금만 기다려줘. 왜 하필 이 곡에 끌렸을까. 그냥 첫 곡이어서였을까. 김창완이 툭툭 내던지듯 부르는 노래는 음악의 고저를 애써 오르내리지 않았

다. 약간의 비음이 섞여 있었고, 록의 비트를 유지하면서도 맥박의 뿔뿔기 속도로 편안했다.

닐리 수 톨레도

중학교 졸업여행 때 폴란드 오슈비엔침 수용소에 갔던 그날은 무척 긴 하루였다. 늘 재잘대던 케이티는 숙소를 나와 오슈비엔침으로 향하는 버스에서부터 일찌감치 엄숙 모드에 들어갔다.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 뜯는 소떼를 지나 도달한 그 곳 정문에 적혀 있는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문구는 죽음과 학살의 기억과 의미 바깥을 걸돌았다.

가이드 직원은 “오슈비엔침은 오히려 인간적인 수용소였죠. 거의 전원이 몰살당한 벨제크와 소비부르와 달리 몇 만명이나 생존했으니까 말이지요.”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살아남은 자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기에 더 악독한 공간들을 제치고 오슈비엔침이 홀로코스트의 상징처럼 됐다는 역설에 씩씩한 웃음을 따라지을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의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카페트, 가방 등을 보며 펄펄 눈물을 흘린 케이티를 달래주다가 가스실 벽면에 가득한 손톱자국 앞에서 내내 가뒹뒹던 내 눈물도 함께 터져 나왔다. 인류의 실패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그 곳을 나오면서 오히려 생각이 또렷해졌다.

그 처참함과 고통의 깊음을 해줘야 할 증오의 대상이 과연 누군가하는 생각이었다. 지금도 네오나치즘이니 뭐니 하는 히틀러 추종 세력이 있다고 하지만 실은 직접적 증오와 복수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유대인이 역사 속 고통을 갚기 위해 선택한 것은 또다른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것, 혹은 자신의 피해와 고통을 고스란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종교적 명분을 앞세우지만 인간 세상의 상식과 질서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할머니는 내 생각에 동의할까.

박수연

야파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며 병원에 잠시 입원했다. 침대에서 걷잡기 어렵게 자라고 있는 암세포를 발견했다. 그간 소화불량 혹은 위궤양이라 여기며 약으로 지냈던 시간들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입원 뒤 죽을 겨우 몇 손가락 들었지만 그나마도 토하기 일쑤였다. 그럴잖아도 자신의 어머니를 따라 부쩍 말수가 줄어든 남편도, 할머니와 늘 눈을 맞추며 지내왔던 닐리도 일주일 가까이 음식을 입에 제대로 대지도 못했다. 병수발은 여전히 내 몫이었다.

“펜 쿠멘 마메 온 타테?”(엄마, 엄마, 아빠는 언제 오세요?)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저 저물어가는 이가 안쓰러웠다. 기운을 짜내며 간절히 묻는 말이었건만 대꾸해줄 힘조차 없었다.

“헹켄 인 도르트. 쿠멘디크 발트.”(그래, 조금만 기다리렴. 곧 오실 게다)

닐리 수 톨레도

할머니는 그렇게 꼬박 한 달 반을 병원에서 생활하다 하느님, 아니 할아버지 곁으로 떠났다. 그 서러웠고 무서웠을 어린 시절을 지나 고향을 떠나 타지를 전전하다 또다른 정신적 의지처를 찾아왔건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했다. 생을 마감하기 전 1년 남짓 지내던 어린 시절의 삶은 행복하고 평화로웠을까. 아니면 또다른 연옥이었을까.

유대교 율법에 따른 장례는 7일간의 쉬브아로 이어졌다. 우리 가족과 이웃은 물론, 미국에서 할머니의 친구들까지 찾아와 돌로 만든 관 위에 돌멩이 하나씩을 얹었다. 아빠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엄마는 오랫동안 흐느꼈다. 엄마는 할머니의 1주기가 가까워지는 날까지 거의 웃지 않았다. 말도, 웃음도, 삶의 희망도 함께 잃은 듯했다. 생애 마지막의 할머니로부터 내쳐진 엄마가 무엇이 그리 서러웠을지 쉽게 짐작도 되지 않았다. 결국 엄마나 할머니나 결국 떠도는 삶이었다.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 두 여자가 불쌍해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엄마에게는 반항과 투덜거림만 더 심해졌고, 그런 내가 너무도 싫었다.

집 안을 감싸고 돌며 일상이 되어버린 적막을 깨고 싶었다. 귀를 찢을 듯한 기계음에 몸을 맡기고 미치도록 몸을 흔들고 싶었다. 파도치는 밤바다가 보고 싶었다. 지중해처럼 잔잔한 이스라엘 앞바다가 아니라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찌렁거리는 파도가 몰아치는 대서양 밤바다가 보고 싶었다. 아빠는 조심스럽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떨겠냐”는 말을 했고, 엄마와 나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박수연

1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었건만 이삿짐은 단출했다. TV, 쇼파, 찬장, 액자, 부엌의 접시와 국자, 식탁 위 꽃병과 접시 하나하나에도 야파의 손자국과 걸레질 흔적이 남아 있다. 남편은 모두 놓고 가자 했다. 막상 짐을 꾸리니 그래도 자질구레한 삶의 흔적들이 많았다. 닐리는 1, 2층을 쿵광거리며 박스에 넣었던 것을 빼거나 빼놓은 것을 다시 넣느라 분주했다. 남편은 미국 뉴욕 작은 신문사에 기자로 일하게 됐다며 벌써부터 팔레스타인 기획 기사 자료 챙기기에 바빴다. 당장 입을 옷들만 십여 벌, 고르고 고른 책 몇 십 권을 야

무지게 묶었다. 그리고 턴테이블이 없어 듣지도 못했던 레코드판 몇 개만 따로 포장하다 우두커니 상념에 빠졌다.

이 산울림의 노래들은 언제까지 싸들고 다녀야 하나. 더 이상 울리지도 않는데 말이다. 정주에 대한 미련일까, 추방돼 떠밀린 삶의 흔적일까,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유목의 삶의 징표일까. 차별과 혐오를 피해 도망친 곳에서 못지않게 무겁고 큰 차별과 배제를 맞닥뜨려 절망하며 계속 도피하고 있는 것일까.

고개를 저었다. 광주에서, 보스턴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미국으로. 지금껏 간절히 붙들고 있던 가치는 무엇이였을까. 내가 기다릴 이도, 나를 기다려 준 이도, 부디 기다려주길 호소할 이조차 없건만 산울림의 노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닐리 수 톨레도

2만 5000 피트 하늘 위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통보하듯 말했다. 나는 한 달 뒤 한국으로 갈 것이라고. 좀체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던 엄마가 흠칫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아빠는 듣지 못했다.

크게 심호흡했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얼른 “나 한국사람처럼 생겼잖아. 나도 한국말 배울래.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갈 거야.”라고 덧붙였다. 잠시 멈춰버린 엄마의 얼굴은 ‘갑자기 왜?’라고 말하는 듯했다. 웅웅거리는 비행기 안의 소음까지 모두 멈춘 것만 같았다. 엄마는 이내 짧은 정적을 깨고 “원한다면 그렇게 하렴.”이라고 말한 뒤 포크를 들고 샐러드를 먹었다. 두어 번 깨작거리더니 “그런데 갑자기 왜?”라고 진짜로 물었다.

엄마가 듣고 흥얼거렸던 그 한국 노래가 듣고 싶었고, 무슨 의미였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엄마의 엄마, 엄마의 아빠가 궁금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소녀인 엄마와 청년인 엄마가 궁금했다는 말은 더더욱 하지 못했다. 대서양 위 밤하늘을 나는 비행기 소음에 귀가 멍멍해지는 즈음 낮게 읊조렸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